

[Press Release] 총 7쪽

강동주 《언젠가의, 그곳에 빛이 비추고》

언젠가의,
그곳에
빛이
비추고A Glimpse
of Light,
Gaze upon
Nowhere

2022.11.10 - 11.30

강동주
Dongju Kang

A-L

2F, 45 Baekseok-
dong 1ga-gil, Jongno-
gu, Seoul, Korea
+82-2-395-8135
http://a-lounge.kr
info@a-lounge.krTuesday to Saturday:
11:00 - 18:00
Sunday & Monday:
Closed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전시 개요

-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강동주 작가의 개인전
- 그간 작가가 천착해왔던 시공간을 기록하는 과정으로서의 드로잉은 이번 전시에서 창문의 표면을 본뜨는 방식으로 구현
- 창문을 본 뜬 <기대는 빛> 연작과 전사한 사진 이미지와 땅 드로잉을 병치한 <저기> 연작이 전시될 예정

전 시 제 목: 《언젠가의, 그곳에 빛이 비추고》

참 여 작 가: 강동주

일 정: 2022년 11월 10일(목) – 11월 30일(수)

기 획: 전민경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표)

후 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 전시 내용

강동주 개인전 《언젠가의, 그곳에 빛이 비추고》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그간 작가가 천착해왔던 시공간을 기록하는 과정으로서의 드로잉은 이번 전시에서 창문의 표면을 본뜨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작가는 오랫동안 지냈던 공간의 창문에 먹지를 대고 문지름으로써 유리 위에 남아있는 자국들을 평면에 옮기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창을 관통했던 빛의 자리를 기록하여 우리가 막연하게 그려왔던 빛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강동주에게 빛은 어둠을 반증하는 물질이자 주변과 접촉하며 반응함으로써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서 이해된다. 작가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빛의 작용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모사해 은유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때문에 주된 작업 과정은 대상의 표면에 매체를 직접 접촉시키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빛이 관통했던 창문을 본뜨고, 사진의 표면을 종이에 전사하고, 땅 위에 직접 종이를 대고 문지르는 제작 방식은 모두 물질과 물질 사이의 표면을 통해 물성을 전달하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변과 접촉하는 시간과 물리적 과정이 동반되는데, 그 속에서 작가는 자신이 사는 터와 맺는 정서적 유대감 또한 구현하고자 한다.

전시 출품작은 창문을 본 뜬 <기대는 빛> 연작과 <저기> 연작으로 나뉜다. <기대는 빛>이 과정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저기>는 강동주가 부여한 빛의 의미를 주제로 한다. 화면에는 두 이미지—지난한 격리 기간 동안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내온 풍경 사진과 작가가 무작위로 선별한 특정할 수 없는 장소의 땅을 먹지와 목탄으로 본 뜬 드로잉—가 병치된다. 어딘지 모를 풍경의 단상과 강동주가 직접 접촉했던 땅의 이미지가 작가에 의해 조합됨으로써 두 공간은 지시될 수 없는 모호한 공간으로 변모해 실재하지만 빛이 닿지 않으면 인지될 수 없는 존재와 부재 사이 어딘가를 제시한다. 이는 작가가 느끼는 공허와 추억 사이에서 생겨난 정서적 풍경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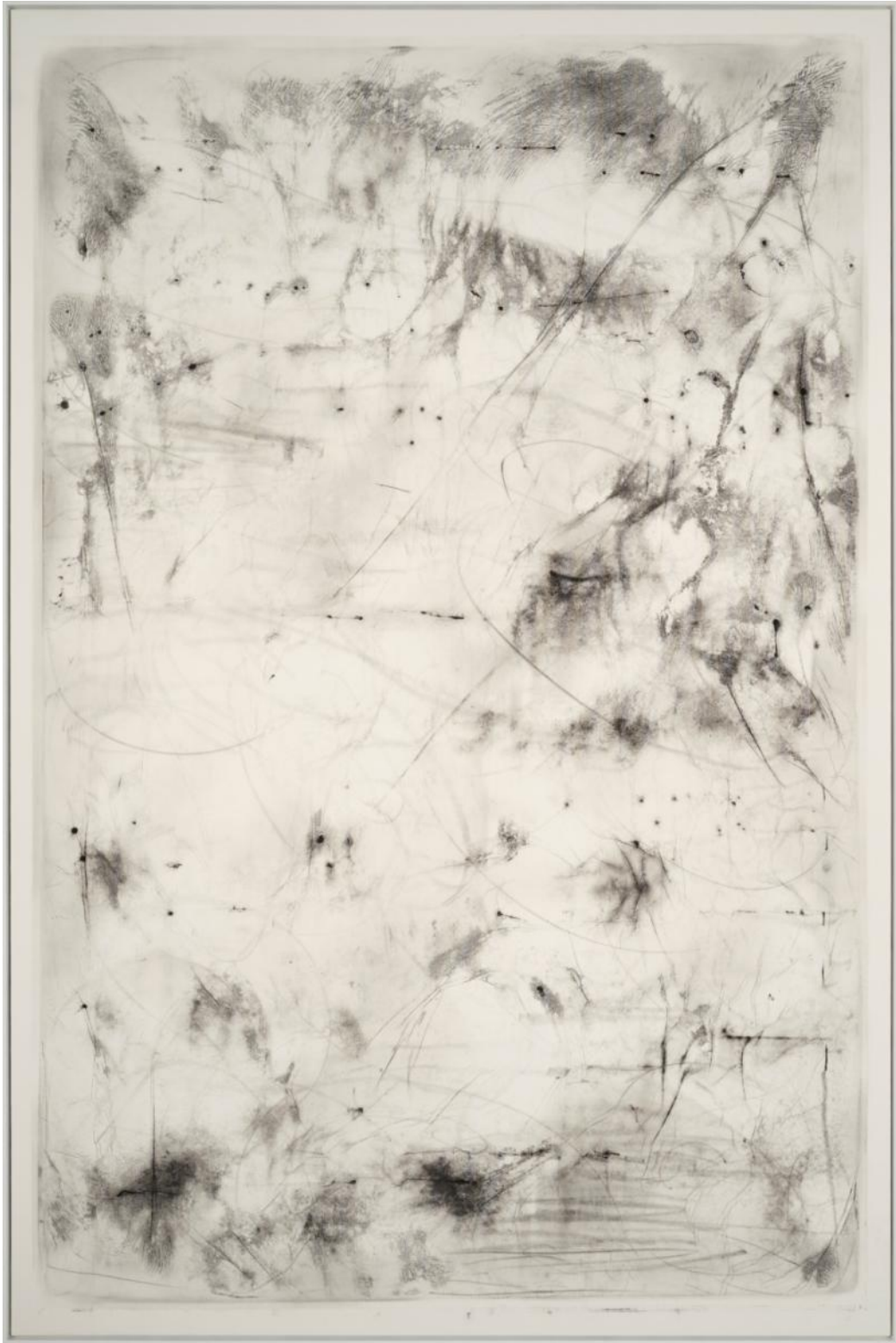
전시에는 스무 점 가량의 신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서문은 독립기획자이자 비영리 창작 컬렉티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의 대표인 전민경이 맡았다.

○ 작가 소개

강동주 (B.1988)

강동주는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2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취미가(2018), 두산갤러리(2017, 2015), OCI 미술관(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즘>(아트선재센터, 2022), <그 가운데 땅>(아르코 미술관, 2021), <판화, 판화, 판화>(국립현대미술관, 2020),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두산갤러리, 2018), <뉴 스킨: 본 뜨고 연결하기>(일민미술관, 2015) 등 단체전도 다수 참가해왔다. 2016년에는 두산갤러리 뉴욕 레지던시에 입주했었으며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며 활발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대표 작품



1. 강동주, <기대는 빛 (2022) #7>, 종이에 먹지, 흑연가루, 167x113.7cm, 2022



2. <먼지들>, 종이에 먹지, 흑연가루, 146x98.5cm, 2022



3. <작은 방 #1>, 종이에 먹지, 흑연가루, 아라비아 고무, 104x70cm, 2022



4. <저기 #4>, 종이에 사진 전사, 흑연 가루, 35.8x54cm, 2022



5. <저기 #7>, 종이에 사진 전사, 흑연 가루, 35.8x54cm, 2022

*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